백두산2

새 세기 태양 누리에 비친다

주체91(2002)년 5월 16일

위인의 천품과 업적 기리 전할 불멸의 저서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인 주체81(1992)년 4월 17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어나가자≫라는 불멸의 저서를 발표하셨는데요. 저서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뛰어난 천품과 업적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시고 주석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기 위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저서에서 밝히신 것처럼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뛰어난 품격과 자질을 지니시고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신 위인중에 위인이십니다.

주석님께서는 사상이론적 예지와 영도력과 덕성에 있어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뛰어난 천품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역사에는 남다른 품격과 자질을 지닌 것으로 이름을 날린 위인이 적지 않았지만 주석님처럼 뛰어난 품격과 자질을 겸비한 위인은 없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위인이 지닐 수 있는 모든 품격과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계시는 걸출한 위인이십니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우선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를 지니신 위대한 사상이론가이십니다. 주석님께서는 뛰어난 통찰력과 분석력, 비상한 기억력과 탐구력을 지니시고 수십성상 변혁운동을 영도하시는 위대한 항일혈전속에서, 변혁운동과 새 사회건립의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명철한 해명을 주는 백과전서적이고 독창적인 사상이론을 제시하신 위대한 사상이론가이십니다.

주석님의 사상이론활동은 민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깊이 반영하고 민중에게 옳은 투쟁사상과 방도를 밝혀주는 민중성으로 철저히 일관되어 있습니다. 인류사상사에 주석님처럼 위대하신 사상이론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또한 탁월한 영도력을 지니신 위대한 영도자이십니다.

주석님의 영도는 가장 현명하고 과학적인 영도입니다. 주석님께서는 멀리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의 비범한 예지를 지니시고 탁월한 영도예술과 영도적 수완으로 단 한번의 노선상 착오나 편향도 없이 정치와 경제, 과학과 교육, 군사, 문학예술 등 이북 사회의 모든 부문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셨습니다.

주석님의 영도는 강철의 의지와 비범한 영도력을 지니시고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시는 위대한 영도였고 모든 걸 민중에 의거하고 민중을 조직동원해 풀어나가신 민중적 영도였습니다.

주석님의 한평생은 끊임없이 민중을 찾으신 현지지도의 한평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북 민중은 행복의 요람속에 인민을 재우시고 이밤도 사랑의 길 떠나시는 수령님이라고 절절히 노래하며 주석님께서 순간이라도 편히 쉬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또한 우리 민중을 끝없이 사랑하는 숭고한 덕성을 지니신 진정한 민중의 수령이십니다. 덕망에 있어서 주석님과 대비할 그런 위인은 역사에 없습니다. 주석님께서는 돈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인덕이 살 수 없다는 것이 할아버지대로부터 내려온 우리 가정의 철학이기도 하다고 하셨는데요. 주석님께서는 조상전래의 인정과 선량성, 미덕을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여기시고 민중을 위한 가장 숭고한 인덕의 정치를 베푸셨습니다.

주석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덕은 동지들에 대한 끝없은 사랑에서 뚜렷이 표현됐는데요. 주석님께서는 동지를 얻는 것으로부터 변혁투쟁을 시작하셔서 동지를 위해서라면 무엇도 아끼지 않으셨고 동지가 많은 걸 가장 큰 재보로, 동지들의 사랑과 믿음을 받는 걸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시며 동지애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수놓아오셨습니다.

민중에 대한 주석님의 사랑의 품은 만사람을 끝없이 안아주는 한량없이 넓은 품입니다. 주석님께서는 사람을 대하는데서 출신성분이나 과거경력이 아니라 현재의 사상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각계각층 군중을 사랑의 품에 안아 굳게 결속시키셨습니다. 이북에서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실제한 사실에 기초해서 훌륭히 만들 수 있은 것도 주석님의 위대한 포옹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주석님의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사랑의 품은 온 민족이 남에 있건 북에 있건 해외에 있건 사상과 정견, 당파와 신앙, 정치생활경위가 어떠하건 관계없이 주석님을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로 우러르며 통일성업에 나서게 했습니다. 영도자는 누가 내세워주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한 업적으로해서 민중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건데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민중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으신 건 민중의 자주위업을 위해 불후의 업적을 이룩하셨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저서에서 주석님께서 이룩하신 업적은 민중을 위해 민중과 함께 이룩하신 업적이며 바로 이것으로해서 주석님의 업적은 민중의 마음속에 기리 빛날 불멸의 업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주석님께서 민중을 위해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을 체계정연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민중을 위해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은 무엇보다도 민중에게 자기 운명을 빛나게 개척해나갈 수 있는 지도사상을 마련해주신 겁니다.

주석님께서는 사회와 자연의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려는 민중의 요구를 헤아리시고 민중을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우셨고 민중이 자신의 힘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통찰하시고 민중을 세계의 개조자, 자기 운명의 개척자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인 민중을 위해 봉사하게 하고 모든 문제를 세계의 주인이자 자기 운명의 개척자인 민중의 창조적 힘과 지혜에 의거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관점과 입장을 확립하셨던 겁니다.

주석님께서 민중을 위해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은 다음으로 민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주체형의 정치조직을 마련하신 겁니다.

주석님께서 창건하시고 영도해오신 조선노동당과 공화국정권은 민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고 돌봐주는 것으로 해서 민중의 절대적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민중을 위해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은 다음으로 민중의 자유와 행복을 보위하는 참다운 민중의 무력을 건설하신 겁니다.

주석님께서는 일찍이 일제의 총검밑에서 신음하는 겨레의 운명을 구원하려면 자기의 군대가 있어야 한다는 걸 뼈에 사무치게 절감하시고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을 지니시고 건군위업을 수행하는 길에 오르셨고 지금으로부터 70년전 안도의 수림속에서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셨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민중을 위해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은 또한 이북 민중을 자주정신이 강한 민중으로 키우신 겁니다.

주석님께서는 변혁운동을 펴나가시는 첫 시기부터 민중을 자주의식으로 정신무장시키는데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주석님의 현명한 영도아래 이북 민중은 자기 운명을 자기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길에 들어섰고 자기의 존엄과 위대성을 당당히 떨쳐왔습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민중을 위해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은 다음으로 민중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를 건립하신 겁니다.

주석님께서는 이북 사회에 민중의 자주적 요구가 훌륭히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를 세워주셨는데요. 이북의 사회주의는 민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 것이 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민중중심의 사회주의입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민중을 위해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은 다음으로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빛나는 선견지명은 일찍부터 주체위업계승의 역사적 필연성을 통찰하시고 그것을 착실히 준비해오셨고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확고히 계승완성해나갈 수 있는 조직사상적 기초와 영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도록 하신 겁니다. 이건 주석님께서 민중을 위해 이룩하신 가장 고귀한 업적입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민중을 위해 이룩하신 업적은 만대에 기리 빛날 위대한 업적이라 하겠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저서에서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을 기리 빛내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도 진심으로 명시하셨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만도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충실성의 세계를 엿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김정일장군님의 이 저서와 더불어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전통과 업적은 만대에 기리 전해질 것이며 **김정일**장군님 계시어 주석님의 위업은 빛나게 계승완성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설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6일~7일

새 세기 태양 누리에 비친다

위인의 천품과 업적 기리 전할 불멸의 저서
위인과 민족적 자존심
민족대단결의 조직체 조국광복회
능숙하고 세련된 세계자주화운동의 사령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영장은 먼저 참다운 인간이어야 한다

위인과 민족적 자존심

오늘 세계의 이목은 미국의 무모한 반북압살책동으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한반도로 쏠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인의 커다란 우려와 규탄을 자아내는 미국의 열핵전쟁책동은 강경에는 초강경에로 맞서는 북의 단호한 의지에 의해 걸음마다 부서져나가고 있죠.

우리 민중은 비록 영토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지만 세계 면전에서 미국에 대고 당당하게 할말을 다하면서 떳떳하게 살고 있는 이북 민중의 모습에서 크나큰 민족적 자존심을 느끼며 반미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북 민중의 민족적 자존심은 그 어느 민족에 비할바 없이 높은 것이죠. 또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지구촌에서 우리 민족의 존엄이 별처럼 빛나게 하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죠. 한 민족의 민족적 자존심은 탁월한 영도자를 모실 때에만 그 빛을 뿌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위인과 민족적 자존심≫에 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김현규씨 모셨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인간이 자존심이 없이는 머저리가 되듯이 민족이 자존심이 없으면 비굴해지고 외세에 의해 짓밟히게 된다는 건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라 하겠는데요. 더욱이 작은 나라일수록 민족적 자존심은 생명과도 같은 거죠. 이북 민중은 지난 수십년동안 높은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고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꿋꿋이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김현규 : 그렇죠. 이북 민중의 그러한 민족적 자존심은 우리 민족이 낳은 절세의 위인들에 의해 새겨진 것인데요. 바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영도자님을 모시어 간직할 수 있게 된 숭고한 사상감정인 겁니다.

사회자 : 그러니까 이북 민중의 높은 민족적 자존심은 결국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영도자님에 의해 생성발전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현규 : 옳습니다. 일찍이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민족적 자존심을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요인으로 보시고 그걸 이북 민중의 폐부에 깊이 새겨주시기 위해 끝없는 심혈을 기울여오셨습니다. 민족을 제일로 위하고 사랑하는 뜨거운 민족애에 바탕한 민족적 자존심은 연도와 연도를 이어온 이북의 모든 승리의 전변들과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강도일제와의 전면전쟁을 선포하시고 수십성상의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실 때에도 주석님의 심중에 차넘치신 건 우리 민족을 짓밟고 살육하는 침략자를 결코 용서치 않으시려는 꺾어지 않은 민족

적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6.25전쟁때 미국놈들은 조선사람 잘못 보았소라고 하시며 미제를 반대하는 지속적인 반공격명령을 내리실 때에도, 전후에 남이 한걸음을 걸을 때 우리는 열걸음, 백걸음을 걸어따라 앞서야한다고 하시며 이북 민중을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게 하실때에도 그 탁월한 영도에는 이북을 가장 빠른 기간에 강국대오에로 들어서게 하시려는 주석님의 민족적 자존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남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인 주석님의 드높은 민족적 자존심과 기질을 따라배워 이북 민중은 남들이 대국의 지휘봉에 따라 놀아날 때에도 변함없이 주체의 한길만을 걸어왔고 미국이 백년이 걸려도 이룩할 수 없다고 하던 폐허위에 보란듯이 사회주의낙원을 꾸려놓았던 겁니다.

사회자 : 정말 드높은 민족적 자존심과 배짱을 지니시고 민족번영의 새 토대를 세우신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을 얘기하자면 끝이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김일성**주석님께서 견지해오신 민족존엄*****은 오늘 **김일성**주석님 그대로이신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변함없이 수행하시고 계시잖아요.

김현규 : 이북이 20세기말의 최악의 역경속에서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과 당당히 맞서 연승을 거두고 있는 것은 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치켜드시고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을 지키고 빛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북이 헤쳐온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전 과정은 그대로 이북의 자존심을 짓밟으려는 보복으로부터 그걸 고수하고 빛내어온 투쟁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꺾이느냐 아니면 꺾이지 않고 떳떳이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주저없이 민족적 자존심 수호의 길을 택하셨던 겁니다.

사회자 : 고난의 그 시기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존심은 사회주의와도 같다는 명언 등 민족적 자존심이 뜨겁게 끓어번지는 유명한 명제를 수많이 내놓으셨다고 하는데요. 결국 준엄했던 그 시기 이북 민중이 받아 안은 사상정신적 양식들은 민중의 민족적 자존심을 키워주시려 애쓰신 그분의 노고와 심혈을 그대로 빗대어주는게 아니겠습니까.

김현규 : 바로 민족의 운명을 끝까지 지키시려는 **김정일**영도자님의 드팀없는 의지로해서 어려운때에도 이북은 국방력강화에 힘을 넣었고 전국을 철벽의 요새로 다져놓을 수 있었죠. 자체의 기술과 힘으로 인공위성도 쏘아올리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자들에게는 즉시에 된매를 안기는 무적의 군력이 있고 오늘 세계 무대에서 이북의 존엄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사회자 : 정말 돌이켜볼수록 제국주의자들과의 타협없는 대결전에서 이북의 자존심은 더욱더 강해졌고 그 압살의 도수가 높아질수록 이북 민중의 자존심은 더욱더 빛을 뿌렸죠. 그건 최근 수년간 이북의 꺽이지 않는 자존심과 위력으로 마련된 현상들이 증명해주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김현규 : 나라가 분열된 때로부터 55년만에 처음으로 마련된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발표로 민족의 통일운동에는 전환적 국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다 우리 민족은 능히 통일을 이룩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민족이라고 보시며 우리 민족끼리 얼마든지 통일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김정일**영도자님의 드놀지 않는 민족적 자존심이 낳은 결정체입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외세의 농락물로 되는 걸 결코 허용할 수 없으셨고 온갖 시련을 헤치시며 선군정치를 펴시어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셨던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최근 미국이 이른바 ≪핵태세 보고서≫까지 공개하면서 이북에 대한 침략기도를 노골화하는데 대한 이북의 대미강경자세는 얼마나 우리 민중의 마음을 후련케합니까. 미국이 아무리 큰소리를 쳐도 결국은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자는 결코 무사치못하리라는 이북의 초강경입장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수십년의 북미대결전이 보여준 진리이기도 하죠.

사회자 : 하기에 오늘 세계 진보적 민중은 엄혹한 한파속에서도 승리만을 거듭하는 이북을 기적의 나라라고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는데요. 현실은 비록 영토는 작고 인구수는 많지 않아도 위대한 영도자를 모실 때 나라의 자주권이 지켜지고 민족의 존엄이 만방에 빛난다는 걸 뚜렷이 보여주고 있죠.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주시고 빛내주시는 **김정일**영도자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자긍심을 안고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고 빛내일데 대한 반미성전에 거연히 분기해나서야 할줄 압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대담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8일~9일

민족대단결의 조직체, 조국광복회

1936년 5월 백두산 북쪽기슭에서의 조국광복회의 창설은 변혁운동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조국광복의 밝은 서광을 안아온 역사적 사변이었는데요. 그럼 ≪민족대단결의 조직체 조국광복회≫에 관해서 좀더 상세히 알아보죠 김현규씨 모셨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 안녕하세요.
사회자 : 5월 5일은 전설적 영웅이시며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신 때로부터 66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 아니예요. 뜻깊은 이날을 보내면서 우리 겨레는 온 민족을 하나의 단합된 역량으로 결집시켜 조국광복성전을 준비시키신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에 관해 말씀나눠볼까해서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규 :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항일투쟁의 첫 시기에 벌써 조선의 독립과 민족의 번영은 민족자체의 힘,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룩해야한다는 확고한 주체적 입장에서 출발하시어 반일민족통일전선형성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해 오셨습니다. 주석님께서는 주체25(1936)년 2월 남호두회의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방침을 제시하셨고 그해 5월 역사적인 동강회의에서 조국광복회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발표하셨습니다.

조국광복회는 유일한 강령과 규약, 조직체계를 갖추고 활동한 우리 나라에서 첫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이었고 노농동맹에 기초해서 각계층 광범위한 군중을 하나로 굳게 단합시켜 반일투쟁에 총동원할 걸 목적한 전국적 규모의 반일민족통일전선체였습니다.
사회자 : 지금으로부터 66년전에 창립된 조국광복회가 어떤 조직이였냐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요. 조국광복회의 중요특징을 꼽는다면 어떻습니까.
김현규 : 조국광복회의 중요특징을 꼽는다면 두가지 점을 지적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당시 유럽과 아시아의 일련의 나라들에서 발족했던 반제반파쇼를 주장하는 정당단체간의 일시적인 통일전선연합체들과는 달리 조국광복회는 각계층의 광범위한 애국역량을 단일한 조직에 결속한 상설적 통일전선조직이었다는 점, 그리고 전민족적 애국역량에 대한 수령의 영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대중적이며 강위력한 지하혁명조직이었다는 점입니다.
사회자 : 그런 점에서 볼때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를 결성하도록 이끄신 주석님의 노선이야말로 독창적인 것 아니예요.
김현규 : 당시 일부에선 프랑스, 스페인, 중국 등에서는 공산당, 사회당, 국민당과 같은 정당들과 노동운동단체들이 있어서 정당단체들의 연합으로 인민전선결성이 가능했으나 우리 나라에는 어떠한 정당이나 합법단체도 사실상 없는거나 같은 조건에서 통일전선적 조직은 불가능한게 아니냐 하는 그런 견해도 성행했었다고 합니다.
사회자 :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그들에서 우리 나라에서 통일전선체조직의 당위성을 어떻게 설명해주셨는지요.
김현규 : 주석님께서는 통일전선체란 반드시 정당, 단체들의 연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절대화하게 되면

그것은 곧 교조가 된다, 군중이 있고 영도핵심만 있으면 능히 통일전선체를 내올 수 있다, 목적과 지향의 당위성을 기준으로 해서 열사람이건 백사람이건 결속해야한다고 차근차근 설명해주셨습니다. 주석님의 그런 취지의 말씀에는 그 누구나 열렬히 공감하고 지지찬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회자 : 애국애족의 입장에서 선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러지 않을 수 없었겠죠.
김현규 :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의 전기와 유격전의 전장마당에서 무르익혀오신 그 뜻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불면불휴의 활동을 벌이셨는데요.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규약, 창립선언서한은 **김일성**주석님에 의해 천고밀림속 행군길과 사령부의 우등불가에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주석님께서는 조국광복회 창립준비위원회 활동도 지도해주셨습니다.

사회자 : 그리고 보면 조국광복회창건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노고와 심혈의 고귀한 결실이었다고 하겠는데요. 민족자주위업의 주체적 역량을 키우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바쳐오신 **김일성**주석님의 끝없는 노고와 심혈이 낳은 결정체가 바로 조국광복회가 아니겠습니까.
김현규 : 조국광복회의 창립은 우리 겨레가 민족자체의 힘으로 반일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나갈 의지를 다시금 엄숙히 선포한 역사적인 계기로 되었고 항일무장투쟁을 기본으로 하는 전반적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앙양에로 추동한 전환점으로 됐습니다.
사회자 : 돌이켜보면 민족의 애국역량을 하나로 결속하려던 시도는 조국광복회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김현규 : 1927년 2월에 창립된 신간회가 그 사례가 되겠지요.
사회자 : 신간회는 우리 나라 민족협동전선의 첫 산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좌우합작으로 민족의 총의를 하나로 결속시키려던 신간회가 불과 몇년을 못넘기고 존재를 끝마친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고 하겠는지요.
김현규 : 그 주되는 요인은 단결의 중심, 다시 말해서 걸출한 영도자가 없었다는데서 찾게 되는데요. 민족대단결과 통일전선의 고귀한 **은 **김일성**주석님에 의해서 비로소 빛나게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제시하신 투쟁강령을 각계층이 다 받아들일 수 있게 작성하신 점 하나만으로도 민족대단결의 구심점으로써의 **김일성**주석님의 빛나는 예지와 영도력을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강령 제1조에 명기된 조선민족의 총동원으로 광범위한 반일통일전선을 실현함으로써 강도일본제국주의의 통치를 전복하고 진정한 조선인민의 정부를 세우자는 내용말입니다. 주석님께서 당면구호를 작성하실 당시 일각에서는 거기에 무산계급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문구가 하나도 없다는 점,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라는 말은 계급적 성격도 모호하고 어쩐지 민족주의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식민지속국의 경우 민족주의자도 다같이 조국해방위업에 참가해야하는 조건에서 그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인민의 정권이야말로 조국광복회가 들고 나가야할 정권임을 밝히셨습니다.
사회자 : 바로 그래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공산주의자도, 민족주의자도, 민족자본가도 그리고 양심적인 지주도, 종교인도, 지식인도 다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것이고 그 감화력에 이끌려 앞을 다투어 조국광복회에 망라됐던 거라고 봅니다.
김현규 : 옳은 말씀입니다. 조국광복회를 결성하시고 그 강령을 발표하실 당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20대의 청년장군이셨는데요. 그처럼 젊으신 나이에 온 민족의 대단결이라는 막중한 위업을 실현하신 주석님이시야말로 정말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사회자 : 정말 가슴 뜨거움을 금할 수 없는데요. 조국광복회의 창립이 갖는 민족사적 의의는 대단결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김현규 : 옳은 지적입니다. 조국광복회가 결성된 건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민족자주위업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졌습니다. 조국광복회가 창립됨으로써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주위에 모든 반일역량을 굳게 결속해 광복성전에 힘있게 조직동원할 수 있게 됐고 주석님의 영도밑에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어서 전국적 범위에서 보다 조직성있고 체계성있게 빨리 달성하게 됐습니다.
사회자 : 우리 겨레는 조국광복회의 숭고한 이념을 안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강도일본제국주의와 과감히 맞서 싸웠고 마침내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했다는 건데요. 조국광복회를 결성하시고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전통을 마련하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을 우리 겨레는 영원히 기릴것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김현규씨 모시고 민족대단결의 조직체 조국광복회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국광복의 서광은 이렇게 백두산기슭에서부터 밝아오기 시작했다는 것, 우리 민중은 잘 알아야겠다고 봅니다.

대담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7일~28일

능숙하고 세련된 세계자주화운동의 사령관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에 참가했던 스리랑카인민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더블유. 에이. 두민두와르다네는 ≪능숙하고 세련된 세계자주화운동의 사령관≫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소개해 드립니다.

나는 위대한 영도자이신 존경하는 **김정일**각하의 뜻깊은 탄생일을 맞으며 진행된 21세기의 태양맞이 모임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선을 방문하였다. 나는 스리랑카공산당을 통해서 조선과 30년동안 연계를 가지고 있어 귀국에 대해 잘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나의 조선방문은 존경하는 **김정일**각하의 탄생일을 맞으며 진행된 것으로 해서 그 의의가 참으로 컸다.

우리는 이번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에서 존경하는 **김정일**각하를 새 세기 인류의 자주위업을 이끌어가실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 그분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공적에 대한 국제연단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현시대의 탁월한 정치가이신 **김정일**각하의 특출한 정치실력과 업적을 알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나는 오랫동안 조선민중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성원해 오는 과정에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민중뿐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 인류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실 수 있는 뛰어난 영도력과 자질을 지니신 걸출한 위인, 위대한 정치가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김정일각하의 정치철학은 주체사상이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시고 **김정일**각하께서 발전풍부화하시고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신 주체사상은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견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이 사회주의를 따라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길을 밝혀주고 있다.

민족의 어버이 **김일성**주석님을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 연이어 들이닥친 자연재해, 조선을 질식시키려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정치경제적 압력과 군사적 압살소동으로 웬만한 나라같으면 열번도 더 거꾸러졌을 미증유의 것이며 최악의 것이었다. 그러나 신념이 강하고 의지가 굳센 조선민중은 겹싸인 난관앞에도 주저앉지 않고 역경을 순경으로, 고난을 행복으로 전환시키고 강성대국이라는 휘황한 미래에로 힘있게 전진하고 있다.

조선에 펼쳐지고 있는 오늘의 이 모든 경이적인 현실은 **김정일**각하의 자주정치, 선군정치가 낳은 빛나는 결실이라고 나는 본다. 존경하는 **김정일**각하는 조선의 운명과 조선민중의 운명만이 아니라 세계의 운명과 진보적 인류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해주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사상이 탁월하고 신념이 강하며 결단성과 지도력이 있는 세련되고 노숙한 영도자를 세계자주화위업의 사령관으로 모신 인류의 앞길에는 언제나 밝고 창창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나는 끝으로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선도자, 세계자주화위업의 위대한 수호자이신 존경하는 **김정일**각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

참 좋은 글이었습니다.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에서 진행된 국제연단은 장군님의 특출한 정치실력과 업적을 알게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고 합니다.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2일~24일

절세위인의 명언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영장은 먼저 참다운 인간이어야 한다

김정일영도자님의 이 명언에는 참다운 인간적 풍모를 지닌 영도자만이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영장으로 될 수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정치가는 인덕이 높아야 하고 나라와 군대는 인덕으로 다스려야한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영장은 탁월한 정치적 수완과 능숙한 영군술도 가져야하지만 그보다 앞서 참다운 인간적 풍모를 지녀야 합니다. 그것은 민중과 군을 돈과 몽둥이, 강권으로 다스리는 정치가나 영장은 정치에서나 군사에서 실패를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변혁운동을 일으키고 떠밀어나가는 직접적인 담당자는 바로 민중이며 전장에서 적과 직접 싸우는 것도 군인대중입니다. 그러므로 숭고한 인간적 풍모로 민중과 군인대중을 한없이 사랑하고 믿고 아끼는 정치가, 영장만이 광범위한 대중의 심장을 뜨겁게 울릴 수 있으며 그들을 불러일으켜 변혁투쟁과 적과의 대결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겨레와 세계 진보적 민중이 **김정일**영도자님을 높이 칭송하고 그처럼 열렬히 흠모하고 있는 것은 그분께서 사상의 위대성, 영도의 위대성, 덕망의 위대성을 한몸에 체현하신 위대한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민중과 군인대중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천품으로 지니고 계십니다. 하기에 그분께서는 변혁운동을 영도해오시는 전기간에 언제나 민중과 군인대중속에 들어가시어 그들과 동거동락을 같이 하셨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안겨줄 수 있는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셨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 펼치시는 선군혁명영도의 길에서 수없이 꽃펴나고 있는 인민군사병들에 대한 전설같은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는 그분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간애의 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김정일**영도자님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영장이시기 전에 숭고한 인간애를 지니신 위대한 인간이십니다.

한민전 전위투사들은 **김정일**영도자님과 같으신 절세의 위인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자긍심을 깊이 새기고 그분의 향도따라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더욱 분기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1일~3일